

##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양 난 미

이화여자대학교

이 은 경<sup>†</sup>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생 262명이었고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진로포부 검사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졌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관여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주요어 :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관여, 진로포부

<sup>†</sup> 교신저자 : 이은경,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120-728)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Tel : 02-300-0624, E-mail : eklea@mju.ac.kr

진로상담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진로계획, 진로·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적응, 진로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문 상담자와 개인 내담자나 집단원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활동(한국청소년상담원, 2002)을 의미한다. 진로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하도록 돕는다. 한편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현실성을 갖게 되고 구체화된다(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4). 이는 진로발달이 삶의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발달과정이 아니라 어린시절부터 시작된 일련의 발달과정임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는 생애초기부터 개인의 진로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차별적 개입방안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하는 진로자아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진로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 선택, 수행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의미하는데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Vandiver & Bowman, 1996). Gottfredson(1981)은 진로자아개념의 발달과정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단계를 포함시켜서 이를 진로포부의 발달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진로포부가 개인이 특정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서 개인의 자아개념, 직

업에 대한 이미지, 직업의 접근가능성, 선호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초기 발달단계에서 생긴 진로포부는 개인의 최종 진로선택과 직업적 미래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Trice & King, 1991). 진로포부란 어린시절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Gottfredson(1981)은 힘과 크기 지향 단계, 성역할 지향 단계, 사회적 가치 지향 단계, 내적 자아 지향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고 보았다. 본격적인 학령기의 시작인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9-13세는 사회적 가치지향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계층과 능력과 같은 추상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며 직업의 사회적 계층과 위신의 수준을 인식하게 되며, 보다 현실적인 진로포부를 형성하게 되어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처음으로 현실적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때이며 초등학생들은 자기이미지에 맞는 진로포부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과정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진로선택이나 결정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정은 이미 아동 초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이정미, 2000). 초등학생들의 진로포부의 형성과 발달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성별 요인(유미숙, 1984; March, Craven & Debus, 1998; Phipps, 1995; Reid, 1995; Stockard & McGee, 1990), 아버지의 직업(Schulenberg, Vondracek & Crouter, 1984; Seligman, Weinstock & Owings, 1988), 어머니의 직업(Seligman, Weinstock, Heflin, 1991; Trice & Knapp, 1992; Trice & Tillapaugh, 1991), 부모의 양육태도(Osipow, 1983; Roe & Lunneborg,

1990; 윤형한, 이지연, 김나리, 2005) 등이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태도나 관여는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의 진로포부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Young과 Friesen(1992)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및 진로영역에서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부모의 이러한 의도적 관여가 아동의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참여는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Hill, Castellino, Lansford et al., 2004),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는 부모의 교육 기대 수준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2000; Lee & Bowen, 2006). Sewell과 Shah(1968)는 부모격려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지능과 교육적 포부 사이의 강력한 매개변인이라고 하였고 유사하게 Yogev(1981)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능력, 학업성적 등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인물의 영향에 의해 매개되며 중요한 인물의 영향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다른 변인의 효과보다도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 중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정환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윤미선, 홍창용, 2006). 아동의 초기학업성취는 향후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들은 간접적인 심리

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한 Fan과 Chen(2001)은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은 아동들은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업성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유능감이 개인의 진로포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Bandura(1977)는 이러한 믿음,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설명하였고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원인이나 특정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효능감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Lent, Brown, Schmidt et al., 2003). 구체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 기대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Bandura, 1977), 실제 성취나 수행 경험보다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을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었다(Hackett & Betz, 1989). 진로와 관련하여 효능감은 목표와 수행, 지속력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효능감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학업포부에 영향을 주며 직업적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et al., 2001). Hackett과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진로결정과 수행을 도울 수 있음을 검증하고 이를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Lent(2005)는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하면서 구체적 영역에 대한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은 남녀학생들의 진로발달, 진로선택, 수행성취, 행동지속성, 진로미결정 그리고 진로탐색행동을 잘 예언한다고 결론지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업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학습자가 학업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Bandura, 1977).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Bandura & Schunk, 1981)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어려움이 있어도 과제를 끈기있게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andura & Schunk, 1981).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포부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업적 활동종류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Bandura, 1997; 이아라, 2006 재인용).

구체적으로 이아라(2006)는 학업우수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진로장벽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 역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포부 발달 측면에서 개인이 학업을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개인의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김아영과 박인영(2002)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효능감간의 상관이 .76으로 높았으나 학업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윤형한, 이지연, 김나리(2005)는 각 교과에서의 구체적 자신감이 진로개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직 진로탐색이나 결정에 있어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에서의 성취경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학업에서의 효능감이 앞으로 가능한 진로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결과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대별되는 가정환경에 대해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부모의 학력,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진희, 김안국, 2005. 재인용).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자녀관계 양식과 보다 직접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학습관련 변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학습관련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영선, 1999; 김현숙, 1995). 임은미(1998)는 부모행동, 학업동기, 학업성취도의 세 변인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를 강하게 예언하는 변인은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부모 행동변인이라기 보다는 자녀의 학업동기변인이며 부모행동은 자녀의 학업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예언한다고 하였다. 이미옥(2002) 역시 부모의 학습관련은 초등학생의 학업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는 자녀들이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게 되며 이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포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김양희, 2008; 박은혜, 2006; 양현정, 이기학, 2007; 이성식, 2004; 이아라, 2006; 이은주, 2006; 최수욱, 2002)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진로개발이

생애의 한 시점에 제한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애에 걸쳐 진로관리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강조하는(윤형한 외, 2005)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진로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포부와 관련하여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 학업성취와 관련된 가정변인과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변인을 매개로 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인과 학습관여라는 가정환경변인이 개인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의 진로포부 발달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진로상담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위의 현실성을 인식하게 되는 진로인식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관련 변인, 부모의 학습관여는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습관여, 어머니의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포부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방 법

### 참여자

서울, 경기 지역의 8개 초등학교 5학년 28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5문항 이상인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62부였다.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127명(48.5%), 여학생은 135명(51.5%)이었다. 이들의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가 8명(3.1%), 고졸 102명(38.9%), 대졸 101명(38.5%), 대학원 이상이 45명(17.6%), 무응답이 6명(2.43%)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중졸 이하가 7명(2.8%), 고졸 134명(31.1%), 대졸 85명(32.4%), 대학원 이상이 27명(10.3%), 무응답이 9명(3.4%)이었다. 아동들이 보고한 가정의 수입은 월 100만원대가 23명(8.8%), 월 200만원대가 47명(17.9%), 월 300만원대가 66명(25.2%), 월 400명대가 42명(16.0%), 월 500만원대가 30명(11.5%), 월 600만원대가 16명(6.1%), 월 700만원대 20명(7.6%)였다.

### 측정도구

#### 부모 학습관여형태 검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를 측정하기 위해 Deci(1995)의 개념에 맞추어 임은미(1998)가 개발한 부모 학습관여형태 검사를 사용하였다.

부모 학습관여 형태 검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평가하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 부모가 공부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학습 선택권 부여 6문항, 적절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공하는가에 대한 민주적 규칙 제공 6문항, 학업과정을 문제해결적 태도로 검토하는가에 대한 적정성과

추구 6문항, 자녀의 학업적 진보를 격려하는가에 대한 학업 진보 격려 6문항,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학업 정보 제공 6문항 등이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학습관여임을 의미한다. 임은미(1998)가 보고한 Cronbach  $\alpha$ 는 .84-.95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아닌 관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별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경우 Cronbach  $\alpha$ 는 .55-.78, 어머니의 경우는 .60-.81이었다.

###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2002)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정도를 측정하는 자신감 10문항, 학습자의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력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학습과제나 목표 설정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조절 효능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6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과 박인영(2002)가 보고한 Cronbach  $\alpha$ 는 .74-.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88이었다.

### 진로포부 검사

O'Brien(1992)은 자신의 진로안에서 성취를

향한 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The Career Aspiration Scale(CAS)을 개발하였다. CAS는 자기 진로분야에서 계획과 목표를 측정한다. 10개의 문항들은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사 3인과 함께 문장을 쉽게 다듬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수정된 문항의 예를 보면 “나는 내 직업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획한다” 등이다. 진로포부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Brien과 Fassinger(1993)가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76이었고, 최수옥(2002)은 여대생들의 진로포부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74의 내적합치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63이었다.

###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 설문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가지 절차를 따랐다. 첫째, 상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담임교사 3인에게 설문지 문항에 있는 단어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예비실시하여 문항 이해도를 검토하였다.

예비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문항은 없었지만 일부 역채점 문항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실시요강에 학생들이 질문할 경우 문항 의미를 부연설명해 주도록 첨가하였다.

본 설문지의 실시는 담임교사의 사전허락을 얻은 후에 연구자가 실시요강과 설문지를 우

편으로 발송하였고 설문지는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도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alpha$ 를 검토하였다. 변인들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변인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정방정식 모형검증에서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부모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은 하위요인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진로포부는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별 총점을 구하여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또한 비교하는 모형이 내재된 경우에 모형비교는 적합도 지수에 더해서  $\chi^2$  차이검증 결과를 고려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결 과

부모관련 변인, 부모 학습관여 변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의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인 변인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수입 등의 부모관련 변인, 아버지 학습관여, 어머니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변인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관련 변인, 부모 학습관여형태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어머니 학력을 제외한 아버지 학력, 가정수입, 아버지 학습관여, 어머니 학습관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학업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분석결과, 부모관련 변인, 부모 학습관여형태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 $R^2=.22$ ,  $adj-R^2=.20$ ,  $F=12.80$ ,  $df=5$ ,  $p<.001$ ). 그러나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수입 변인의 예측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학습관여 변인의 예측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26$ ,  $p<.01$ ;  $\beta=.20$ ,  $p<.05$ ). 따라서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신감이 높아지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학습관여보다는 아버지 학습관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 부모 학습관련 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sup>2</sup> (adj-R <sup>2</sup> )	F	β (B)	t
부학력	.22(.20)	12.80***	.10 (2.65)	1.26
모학력			-.08 (-2.40)	-1.12
가정수입			.09 (1.17)	1.54
부학습관여			.26 (.38)	2.67 **
모학습관여			.20 (.29)	2.09 *

주. \* p<.05, \*\* p<.01

부모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에 대한 모형검증

아버지 학습관여, 어머니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정모형의 아버지 학습관여와 어머니 학습관여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각 하위요인의 오차변량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오차변량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차항간에 공분산 경로를 추가하였다.

우선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943, .926으로 모형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7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측정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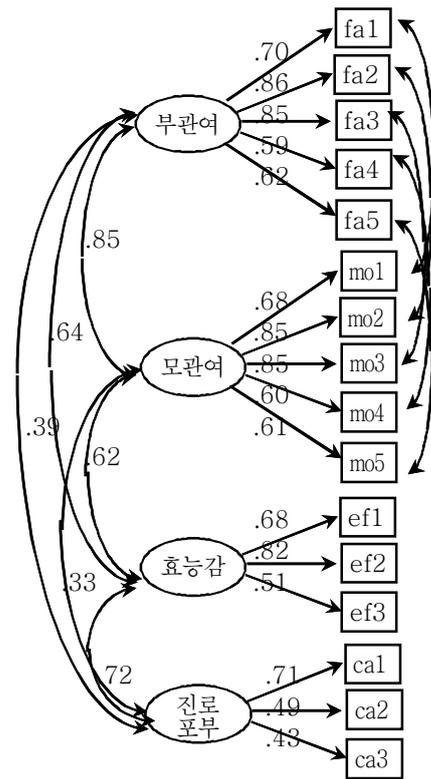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이론모형 검증에서는 부모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직접 경로만 있는 그림 2의 단순효과 모형과 그림 3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 학습관여와 진로포부를 매개하는 부분매개효과 모형 그리고 그림 4의 부모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직접 경로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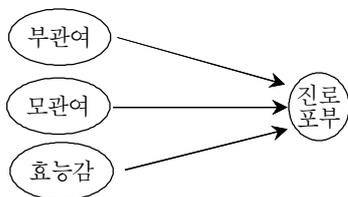


그림 2. 단순효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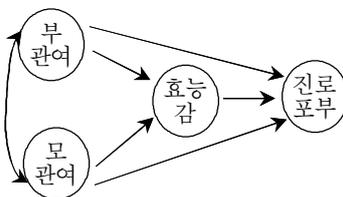


그림 3. 부분매개효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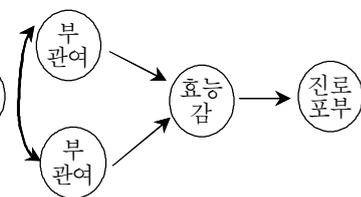


그림 4. 완전매개효과 모형

표 3.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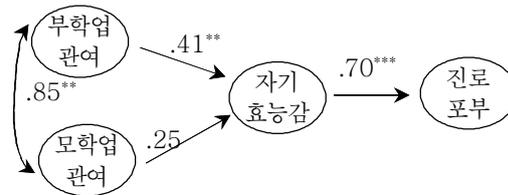
	$\chi^2$	$\Delta\chi^2$	df	CFI	TLI	RMSEA
단순효과 모형	600.622		97	.801	.754	.141(.130-.152)
부분매개효과 모형	237.731		93	.943	.926	.077(.065-.089)
완전매개효과 모형	241.000	3.269	95	.942	.927	.077(.065-.089)

외한 완전매개효과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3의 검증결과와 같이 부분매개효과 모형의 적합도가 단순효과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 $\chi^2=237.731$ , CFI=.943, TLI=.926, RMSEA=.077). 따라서 부분매개효과 모형이 단순효과 보다는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 학습관여와 진로포부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분매개모형의 경로 중에서 아버지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어머니 학습관여와 진로포부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 즉 아버지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어머니 학습관여와 진로포부간의 경로를 제외한 그림 4의 완전매개효과 모형을 그림 3의 부분매개효과 모형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chi^2$ 차이 검증 결과는  $\Delta\chi^2(2)=3.269$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p>.05$ ) 나머지 적합도 지수에도 두 모형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완전매개효과 모형에서 제외된 경로는 구조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부분매개 모형에서 주어진 경로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매개효과 모형보다는 완전 매개효과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완전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로도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관여가 높을



주. \*\*  $p<.01$ , \*\*\*  $p<.001$

그림 5. 완전매개효과 모형 경로도

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beta =.41$ ,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 수준 역시 높아졌다( $\beta =.70$ ,  $p<.001$ ). 반대로 어머니 관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eta =.25$ ,  $p>.05$ ). 즉, 아버지 관여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동들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어머니의 관여는 아동들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동들의 학업적 자신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포부,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현실적인 진로포부 수준을 인식하게 되는 초등학생에게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졌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관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온 환경 중 하나이다.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정의적, 인지적 발달에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손진희, 김안국, 2005). 특히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다. 김일혁(2005)은 수학 성적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부모의 관여는 부모의 지위변인보다 수학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매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습관여보다는 아버지의 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김영미, 김아영, 1998; 김태은, 현주, 2007; 박승호, 1999). 또한 개인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서 가족관련 변인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상이한 특징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부모의 지지, 애착 및 심리적 독립, 원활한 의사소통, 부모의 직업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2000; 김영선, 1999; Lee & Bowe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학습관여검사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정도를 응답하는 것으로 부모의 문제해결적 태도, 지지와 격려정도 등 몇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연구결과 분석시 이를 총점으로 분석하여 관여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습관여 유형이 어떠한 것이며, 이들 유형이 어머니의 관여 유형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으며, 단지 관여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어떠한 관여 유형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정의 다양한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일관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음(손진희, 김안국, 2005)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학습관여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인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 한정되었으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대상을 토대로 그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사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의 학습에 대한 관여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앞으

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 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진로포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진로포부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생기고 이 시기의 포부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행욱, 2005). 또한 이들의 진로포부는 오로지 흥미에 기인된다고 가정한 환상적 단계에 비해 더 안정적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Trice & King, 1991). 이 연구에서 초기 면접동안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한 아동의 74%는 8개월 후 추후면접에서도 46%가 같은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아동의 진로목표가 안정적이며 실제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결국 초등학생의 진로포부는 통념과 달리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아동의 진로포부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긍정적 학업성취와 이를 매개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도, 혹은 진로발달 등과 같이 개별 변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여 각 변인들의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여는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에 부모 관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결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클수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으며 자녀가 능력이상의 기대나 압력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면 목적달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동기, 흥미, 태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박순애, 1996; 이재구, 2000; 윤미선, 홍창용, 2006 재인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피드백 보다는 자녀의 학업동기,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자아개념, 학습과정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을 통하여 자녀가 자신을 이해하고 점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초등학생과의 진로상담시 부모와의 상담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상담에서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갖게 되는 진로자아개념의 중요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부모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의 직접적인 학습관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특성이해, 자녀의 효능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할놀이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성, 성격과 같은 개인적 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수준, 학업에서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 등을 함께 탐색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일과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되므로 학업관련 자아개념을 점검하고, 이들 경험을 미래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도 진로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을 앞둔 청소년과 달리 진로인식단계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진로상담 개입방안의 보다 많이 제안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진로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직업세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의 평생 진로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면에서 학교차원에서의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 또한 전연령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이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그 직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진로가 개인 자신과 생활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개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능력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이정미, 2000).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포부 발달은 진로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며 학습경험을 보다 의미있게 해준다(Wang & Staver, 2001). 그러한 면에서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너무 이르고 잠정적이라고 지적되면서 체계적인 진로지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전다복, 2007). 단지 5,6학년 실과 시간을 활용하여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과 진로포부에 대한 변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진로 발달과 진로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가정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들에게 지각된 정도를 파악하여 실제 부모의 학습관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학습관여에 대해 보다 압력을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는 보다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학습관여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점도 연구결과에 대한 확고한 해석을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의 학업관련정도의 파악을 위해 실제 부모 면접이나 설문자료를 이용한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학업성취도의 수준을 연구에 포함하지 않아 이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실제 학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혹은 진로포부와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현실적으로 높은 학업성취 수준은 높은 진로포부수준과 관련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학업성취도의 수준을 고려하여 모형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점이다.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4)는 청소년의 직업 인식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각 직업영역에 대한 포부수준은 연령에 따라 증가되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여성적인 직업에서 높은 포부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들의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는 직업선호도에 대한 안정성의 여부 뿐만 아니라 성역할 기대, 지위가치, 직업포부에 대한 개인적 관심 등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받는다. 특히 이중에서도 성별과 관련된 연구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직업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가족관련 변인이 개인의 진로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더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학습관여 형태 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진로포부 검사는 원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가 부족한 현실적 한계와 선행연구에서 중1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문항이해도만은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윤미선, 홍창용, 2006; 전행욱, 2005).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발달단계상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척도의 재타당화를 포함하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아영, 박인영 (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양희 (2008).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종단연구: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김아영 (1998). 학원수강이 학습동기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학 연구*, 2(1), 240-254.
- 김영선 (1999).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일혁 (2005). 고등학생의 가정배경 변인과 수학 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은, 현주 (2007). 학교급별 학업능력에 대한 학습효능감, 학습동기화, 성취목표지향성의 효과. *교육심리연구*, 21(1), 185-207.
- 김현숙 (1995). 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생의 성취동기와의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호 (1999). 초등아동의 자기조절학습에 관여하는 인지 및 동기의 개인차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25-454.
- 박은혜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진희, 김안국 (2005).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현정, 이기학 (2007). 남녀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포부간의관계 연구.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유미숙 (1984).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인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선, 홍창용 (2006). 중학생의 부모 학습관련 지각과 교과흥미 및 교과성적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8(2), 139-155.
- 윤형환, 이지연, 김나리 (2005). 청소년의 진로개발 영향요인 및 성과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미옥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학업동기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2004). Gottfredson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진로포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

- 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6). 여대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포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산교육학연구, 13(2), 101-123.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다복 (2007). 진로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행욱 (2005).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옥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청소년진로상담: 청소년상담사 2급 연수교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4). 대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아시아교육연구, 5(1), 127-143.
- Bandura, A. (1977).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L. Pervin, & O.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 (pp.154-196). NY: Guilford.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Deci, E. L. (1995).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Press.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ckett, G., & Betz, N. E. (1989). An exploration of the mathematics self-efficacy/mathematics performances correspondence.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0(3), 261-273.
- Hill, N. E., Castellino, D. R., Lansford, J. E., Nowlin, P., Dodque, K. A., Bates, J. E., & Pettit, G. S. (2004). Parent academic involvement as related to school behavior, achievement and aspirations: Demographic variations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1491-1509.
- Lee, J., & Bowen, N. K. (2006). Parent involvement, cultural capital and the achievement ga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 Journal*. 43(2), 193-218.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S.,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 Marsh, H. W., Craven, R., & Debus, R. (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 multicohort-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4), 1030-1053.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Osipow, S. H. (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hipps, B. (1995). Career dreams of pre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1), 19-32.
- Reid, G. M. (1995). Children's occupational sex-role stereotyping in 1994. *Psychological Reports*, 76(3), 1155-1165.
- Roe, A., & Lunneborg, P. W. (1990). Personality development and career choice. In D. Brown & L. Brooks, et al.(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pp.68-101).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ulenberg, J. E., Vondracek, F. W., & Crouter, A. C. (198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129-143.
- Schunk, D. H. (1983).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6), 848-856
- Seligman, L., Weinstock, L., & Heflin, E. N. (1991). The career development of 10 year old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5(1), 172-181.
- Seligman, L., Weinstock, L., & Owings, N. (1988). The role of family dynamics in career development of 5-year-old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2(3), 222-230.
- Sewell, W. H., & Shah, V. P. (1968). Social class, parental encourag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5), 559-579.
- Stockard, J., & McGee, J. (1990). Children's occupational preferences: The influence of sex and perception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3), 287-259.
- Trice, A. D., & King, R. (1991). Stability of Kindergarten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to parent's occup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3), 355-357.
- Trice, A. D., & Knapp, L. (1992). Relationship of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to parents' occup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3), 355-357.
- Trice, A. D., & Tillapaugh, P. (1991). Children's estimates of their parents'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ports*, 69(1), 63-66.
- Vandiver, B. J., & Bowman, S. L. (1996). A schematic re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 of Gottfredson's model. In M. L. Savickas, & W. B. Walsh(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155-168). Palo alto: Davies-Black.
- Young, R. A., & Friesen, J.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3), 198-207.
- Wang, J., & Staver, J. R. (2001).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science education and student career aspi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5), 312-319.
- Yogev, A. (1981). Determinants of early educational career in Israel further evidence for the sponsorship thesis. *Studies of Israeli society*, 4, 177-190.
- 원 고 접 수 일 : 2008. 3. 7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28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as it applies to the Relationship of Career-Aspiration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Nan Mee Yang**

Ewha Womans University

**Eunyoung Lea**

Myongji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academic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aspiration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285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Kyunggi and Seoul. The subjects completed the Parent Academic Involvement Type Scale, th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and the Career-aspirations scale.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aspiration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academic involvement of the father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mother. Secondly, academic self-efficacy was revealed to funct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aspirations in this population group.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for career counseling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made.

*Key words : academic self-efficacy,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career-Aspiration*